

'80대 20'의 비밀

최근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발생한 조계종사태는 불교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평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속세의 권력, 재물에 대한 집착을 비난하며 마음을 비우라는 그럴싸한 말씀을 일삼았던 불교계마저 시정 잡배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으니 불교체면이 말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역시 한국 사람은 별 수 없다'는 자학의 소리까지 나온다. 그러나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불교 교단과 교리와 신앙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교단을 구성하는 사람은 한국인이며 한국적 원형을 지니고 있기에 한국적 병리가 출몰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팔을 안고 오르면 굶히는 괴루함'과 '칼자루 쥐는 자리가 제일'이라는 사고가 있다. 이것은 다소의 이해타산이라도 대립되면 어김없이 발동되는 한국인의 정신적 병리이다.

조선 시대에는 도시인 서울과 폐쇄적인 8만개의 마을이 고작이었다. 모두가 감투를 최고로 여기며 특히 자기 마을을 위하는 마음은 특별했다. 이것이 잘못 확대되어 '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모두 남'이라는 이기적인 '우리'의식이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 뿌리깊이 잠재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감투제일주의, 지역차별, 학벌차별 등의 한국병은 한결같이 이 고루한 '우리'의식에 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국가를 향한 행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일본 어느 섬의 원숭이무리의 모래나 흙이 묻은 고구마로 사육되었으나 6년이 지난 어느날 그 중 한마리가 흙 묻은 고구마를 바다물에 씻어 먹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다른 원숭이가 그 짓을 하려고 그 수가 차츰 늘어나 일정한 수에 달하자 그 섬안의 원숭이는 물론, 다른 지역의, 그것을 보지 못한 원숭이들까지도 모두 고구마를 씻어먹기 시작했다. 원숭이가 우리가 고구마를 씻어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본지 논설위원)

“한사람 한사람 행동·의식변화 전체의 20%되면 사회는 바뀐다”

생명체는 늘 변화한다. 특히 동물은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종을 존속해 가며, 인간사회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함으로써 문화의 발전으로 민족을 유지해 간다. 우리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일본 어느 섬의 원숭이무리의 모래나 흙이 묻은 고구마로 사육되었으나 6년이 지난 어느날 그 중 한마리가 흙 묻은 고구마를 바다물에 씻어 먹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다른 원숭이가 그 짓을 하려고 그 수가 차츰 늘어나 일정한 수에 달하자 그 섬안의 원숭이는 물론, 다른 지역의, 그것을 보지 못한 원숭이들까지도 모두 고구마를 씻어먹기 시작했다. 원숭이가 우리가 고구마를 씻어

“사행심-한탕주의의 경계하자”

기업·백화점 경쟁경쟁... 결국 소비자 부담

싸고 질 좋은 제품으로 건전 소비문화 유도해야



경품보다는 질 좋고 값싼 상품을, 한 업체의 경품추첨 행사에 80여만명이 열세를 보였다.

소비자들도 고가 경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1일 대전주부교실이 주부 3백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6.3%가 일부 백화점의 고가 경품행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찬성' (23.7%)보다 훨씬 많았다.

주부들은 '사행성 조장' (54.2%)을 가장 큰 반대 이유로 꼽았고, 이어 '고가격 전체가 아닌 특정인'에 대한 혜택 (19.9%) △충동구매 유발 (8.6%) △결국 소비자 부담 (8.0%) 등을 들었다.

이와관련 중대협 소비자위원회 서동석 실장은 "고액경품은 충동구매와 과소비를 조장할 뿐 아니라 허황된 욕망만 부추겨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노력을 의미 없게 만들 수 있다"면서 "업체들은 구매 합리화를 통해 판매가격을 절감, 싸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다"고 말했다.

"고가경품은 소비자를 불합기 위한 교육책"이라고 주장하는 업체 측은 "교육책이기에 업체 회성의 알파한 상흔으로 끝날 수 있음을 명심해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으로 정당한 매출신장을 기약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hopia.com)

불교의 눈 "법당에 재물 구하라"

"바른 상도로 장사를 하라. 힘써 노력하여 늦도록 일하는 재가자가 죽은 후에 '입으로부터 빛을 발하는 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들속에 태어난다." (아함경) 업체들은 고가의 경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기 보다는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른 상인의 태도가 아닐까. 행여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장사를 하고 재물을 모으되 계량기를 속여서 팔거나 그것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다면 죄가 된다'는 (구바사계경)의 법문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 역시 경품에 눈이 멀어 허황된 욕망을 키울 것이 아니라 분수에 맞게 재물을 구해야 한다. <사제경>은 그래서 "무리하게 구하지 말고 분수를 알라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사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만 법당에 재물을 구하되 법당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이라 한다"고 설한다.

美서 '半人半牛' 기술개발

'생명질서 파괴' 윤리적 비난 쏟아져

축생과 인간을 오가는 윤리는 이제 무의미하게 되는 걸까. 공상과학영화나 나옴법한 반인반수(半人半獸)가 탄생할 것인가에 지구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지는 12일 미국의 유전공학회사 ACT사와 미국 매사추세츠대학팀이 공동으로 인간과 소의 세포를 융합시켜 자라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96년 사람의 백혈구와 구강내 점막세포 52개에서 핵을 추출한 뒤 이들 핵을 제거한 소의 난자에 이식하는 실험을 시작해 실패를 거듭한 끝에 최근 이중 1개의 세포를 성공적으로 융합시켰다는 것. 연구팀은 현재 다섯차례 분열을 거듭해 순조롭게 자라고 있는 이 세포가 장래 어떤 모습을 지닐지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연구를 주도한 ACT사 호세 사벨리 박사는 "생물체의 형태를 결정짓는 유전자는 대부분 핵에서 비롯되므로 이 세포는 소보다 사람에 훨씬 가까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성숙할 경우 장기이식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반수반인 창조에 대해 윤리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보도를 접한 미국 과학자들은 대부분 "자연계의 생명체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가공할 실험"이라며 실험중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ACT사는 현재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중이며 공청회를 통해 실험결과와 의미를 공개하고 계속 연구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담양·장성에 '환경댐' 수질개선용으로 2000년 착공

수량이 부족해 '죽음의 강'으로 변하고 있는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남 담양군과 장성군에 중규모 댐 2개가 건설된다.

전남도는 내년 부터 오는 2000년대 초까지 6백여억원을 들여 영산강에 하천 유지수를 흘려보내는 '환경댐'을 건설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농업용수·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등을 확보하기 위한 댐이 아닌 수질개선용 환경댐이 건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댐이 건설되는 곳은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오례천 상류와 장성군 삼계면 덕산리 평림천 상류 등. 담양 오례천은 저수용량 924만·하루 용수 공급량 326,000t 규모이고, 장성 평림천은 저수용량 1,025만·하루 용수공급량 32만 규모다.

이 두 댐이 완공되면 하루 826천t의 맑은 물을 수량 부족으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영산강으로 흘려보내 생태계를 복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랑의 불빛 찾기 운동'

한국전력 부산지사 직원 2백8명이 이달부터 관할인 부산·울산·양산·김해지역의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과 1대1 결연을 맺어 1인당 월 5천원씩의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사랑의 불빛 찾기 운동'을 벌이기로 해 눈길.

한전 직원들은 IMF효과로 3개월 이상 전기료를 못내는바라에 한 전규정에 따라 단전됐거나 단전의 위기에 처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위해 이같은 아이디어를 냈다.

국립공원내 밀렵도구 제거

환경부는 16일 겨울 밀렵철을 맞아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반달가슴곰, 산양 등을 보호하기 위해 17일부터 한달간 국립공원을 갖추는 밀렵도구 제거와 밀렵방지 순찰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품모아 이웃돕기 25년

25년동안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 관 수익금으로 소년소녀가장과 노인 등 불우한 이웃들을 돌보아온 윤씨. 그녀는 11일 '유엔환경계획'

글로벌 500 한국인회'가 수여하는 '풀뿌리 환경상'을 받았다.

중형병원 10곳 폐수 무단방류

수은, 폐혈 등이 함유된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으려고 병상 수를 허위로 줄인 서울시내 중형병원 10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 2부는 17일 서울 감서소법원 총무부장 이경용, 근화병원 총무부장 양재현, 방주병원 총무차장 고현달씨 등 3명을 수질환경보전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소하고 등주병원 행정부장 김형근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윤장대(보물 제684호)를 돌려서 무명을 밝히자

예천군 용문면 소재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온 범보대찰 용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진 화엄도량 용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경각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불좌상, 목각행화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성맥을 잇고, 고려 명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대 대법회를 여는 동안 이러한 보물들은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흥흥에 앞장서서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상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설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용문사에서는 근대 이래 최초로 윤장대를 공개하여 윤장대 윤전 대장경 불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윤장대를 돌리면서 엄정이 소멸되고 각자 구하고 원(願)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남북통일과 IMF 국난극복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특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가 구축하여 학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 지 청 안 합 장

일 지 : 1998년(불기 2542)년 11월 23일(음. 10월 5일) 오전 10시 ~ 오후 10시 / 회 파 : 1998년(불기 2542)년 11월 29일(음. 10월 11일) 오전 10시

• 동(1인당) 5,000원 • 영가 위패(1위당) 5,000원 • 대장경을 읽고 법성도를 들면서 윤장대를 윤전하실 분만 동참금 1만원을 준비하십시오.

• 동참 온라인 계좌 농 협 : 747028-51-009313 예금주 : 용 문 사 • 당일엔 혼잡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윤전 대장경 초청 법회 : 영허 록원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보대찰 소백산 용문사 문의 : (0584)655-8695(중무소), 655-1010, 8405 (02)582-4665, 522-0770 서울포교당 정안사

조계사암 버스출발 안내

11월 23일~ 11월 29일까지 매일 오전 7시 출발(당일 왕복) ☎ : 720-1656 (전화로 출발일을 접수하여 주십시오)

용문사 가는길

버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 10~6 30 40분간격)
3시간 30분 소요 → 예천에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비행기 : 대한항공(서울 → 예천) 오전 9시 5분 오후 5시
아시아(서울 → 예천) 오전 8시 오후 6시

• 용문사 주차장에서 5분거리로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장량 대형저장 주차 가능

삼사순례도

대운사 10분 소요
김홍사 30분 소요
경원사(10분 소요) → 용문사(15분 소요)
30분 소요

부석사 30분 소요
정원사 50분 소요